

## 일반 시민이 인식하는 공직부패 원인의 정량적 연구: 구조방정식모델 활용을 중심으로

배영민<sup>1</sup>, 한승조<sup>2\*</sup>  
<sup>1</sup>김천대학교, <sup>2</sup>국방과학연구소

### (A) Quantitative Study on Public Corruption Causes that Citizens Perceive: Focusing 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Young-Min Bae<sup>1</sup>, Seung Jo Han<sup>2\*</sup>  
<sup>1</sup>Gimcheon University, <sup>2</sup>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3가지 측면(업무환경, 공직자 인적, 부패 통제)에서의 공직부패 원인이 시민이 인식하는 공직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0년도에 정부부처 부정실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1,000명의 설문조사 결과가 구조방정식모델의 DB로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업무환경 측면(외부적 요인)은 공직자 인적 측면과 부패에 대한 통제 측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공직자 인적 측면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공직부패의 심각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업무환경 측면은 직접효과로써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공직부패의 심각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직자 인적측면을 통해 간접효과로써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공직부패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인식하는 공직부패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외부, 즉 국가 전체적인 청렴의식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현재도 존재하는 부패 관행을 줄이기 위한 자체 정화 및 높은 수준의 통제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ree aspects of public corruption causes (Work Environment, Public Officers, and Corruption Control) on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perceived by citizens. In particular, the analysis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 of surveying 1,000 people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in 2020, as part of a study on the corruption state in the government sectors, was used for SEM DB.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work environment (external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sonals of public officials and corruption control.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sonals of public official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everity of public corruption perceived by citizens. On the other hand, the work environment as a direct effect did not affect the seriousness of public corruption perceived by citize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to reduce public corruption perceived by citizens.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integrity in the public sectors and the society and apply a stricter corruption control system.

**Keywords** : Public Corrup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ork Environment, Personnel Aspect, Corruption Control

이 논문은 2021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gc21071)

\*Corresponding Author : Seung Jo Han(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email: seungjo1651@naver.com

Received January 3, 2022

Revised January 24, 2022

Accepted March 4, 2022

Published March 31, 2022

## 1. 서론

공직부패(Public Corruption)는 공무에 연관된 인원이 법적 권한과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개인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부패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한 국가의 국가 위상 하락과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 감소, 이로 인한 경제 분야의 투자 감소까지 영향을 미친다[1]. 전통적인 부패는 뇌물 수수, 배임 및 횡령, 예산 낭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재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불투명/이익충돌을 야기하거나, 연고 및 온정이 관여된 업무처리, 복지부동을 통한 태만 등도 포함하고 있다[2].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정기적으로 주요 국가별로 국가경쟁력 (National Competitiveness)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대분류에서 합법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 시장(Market), 인적 자원(Human capital), 창의적 생태환경(Innovation ecosystem)를 포함하고 있고, 합법적 환경의 하위요소로서 투명성 분야에 공공부부 부정부패가 포함되어 있다[1].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WEF에서 2019년에 141개국의 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는 13위로 보고되었으며[3,4], 경제 규모나 2021년 선진국으로의 공식 인정에 비해 공공부부 부정부패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직부패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사회과학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직부패의 원인을 주로 조직원 및 업무 특성을 포함한 조직 내부의 원인에서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았으나, 현대에는 조직 내부 외에도 조직이 외부와 상호작용(Interaction)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 측면에서 조직 내 인적 구성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구성된 기관은 외부의 기관 및 관련 인원과 갖는 접촉과 업무적 연관성(Work Relationship)을 지니기 때문[5]에 외부요인이 조직 내의 부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시스템 이론의 관점이 조직론 측면에서 구체화된 사회연결망이론(Social Network Theory)에서도 조직 내 인원은 외부 사회 인원과 연결(Linkage)되어 있기 때문[6]에 조직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직부패를 완전히 없

앨 수 없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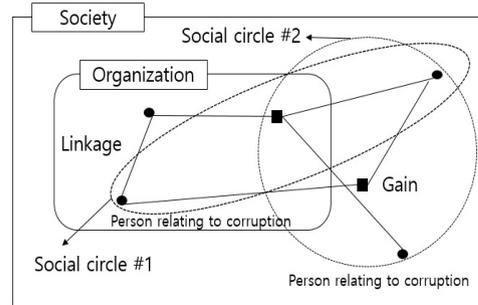


Fig. 1. Social Network Theory[7]

조직 내부 측면에서 공직자의 인적부분이 공직부패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공공분야의 인원은 상대적으로 외부 조직에 비해 낮은 보수를 보장받지만, 보수에 비해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수반한다[8].

또한, 현직에 있을 경우의 전문성과 경력은 퇴직 후에도 전관예우 차원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빈번하며, 이를 취업제한 등의 제도적인 장치로 방지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 장치의 효용성에 많은 허점도 분명 존재한다[8,9].

이러한 현상을 회전문 현상(Revolving Door Phenomenon)이라 하며, 퇴직 공직자가 민간부문으로 재취업하여 공직의 경험과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이권에 개입하는 현상을 말한다[10].

조직 내부 측면에서 공직자의 인적부분 외에도 공직부패와 연관되어서는 통제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통제의 영역이 이에 부합되는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연구되고 있으며[10,11],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통제 시스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공익신고제도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제도가 추가적으로 마련될 수 밖에 없다.

유영현 연구에서는 공직 부정부패의 원인이 개인적인 요인, 행정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에 있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사회적 요인에 공직사회 외부의 사회적인 공직부패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12].

조운행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과 연관

된 공직부패 원인에는 연고·혈연·온정주의와 같은 유교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과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13].

전수일 등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공직부패의 해결방안으로 법적인 적용 절차의 구체적인 제시와 법적 적용의 강화, 시민사회의 감시 증대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14].

백완기 등의 연구에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소시키는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외부 시민사회와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6].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정성적인 측면에서 공직부패를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정량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모델을 구성하여 가설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차이점(Research Gap)을 지닌다. 물론 배영민과 한승조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정량적인 분석기법을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공직부패의 원인을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각화하지는 못했다는 차이점이 있다[1].

공직부패를 연구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크게 공직부패와 관련된 행정조치의 결과를 종합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기관별 공직부패 수준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설문을 통한 방법 중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내부 인원을 선정하는 방안, 외부 타 공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방안, 일반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인식을 연구하고자 할 때 시민들을 설문주체로 선정하는 방안들이 있다. 이러한 설문 대상자의 선정은 연구 주제에 따라 연구 수행자에 의해 적절히 결정된다. 추가적으로 사회학이나 조직이론 등을 근거로 이론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원인에 대한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방법 중에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업무환경, 공직자 인적, 부패 통제)에서의 공직부패 원인이 시민이 인식하는 공직부패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 행정연구원이 2020년도에 정부부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1,000명의 설문조사 결과가 구조방정식모델의 DB로 활용되었다.

연구의 구성은 1장 서론에서 연구배경과 기존연구를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였으며, 2장에서는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모델 및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연구결과와 요약과 추후 연구방향 등이 제시된다.

## 2. 연구방법 및 분석

구조방정식모델(SEM)은 개념적인 잠재적인 변수(Latent Variable)간의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인 기법 중의 하나이며, 잠재변수는 다수의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s)를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된다[15].

SEM에 DB로 활용되는 설문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Top-Down식 방법으로 연구개념(Research Concept)이 연구자에 의해 정해지면, 이에 적합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자료를 얻는 것이 있다. 다음으로는 Bottom-Up식 접근이며, 이는 기존의 패널자료 등을 통해 정리된 DB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Top-Down 식 방식은 연구주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나, SEM의 특성상 200개 이상의 설문을 종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Bottom-Up 방식은 기존 설문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한 노력과 시간이 절약되지만, 연구주체에 적합한 DB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기존 패널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Bottom-Up 방식을 적용하였다.

### 2.1 연구모델 및 가설설정

Fig. 2에서와 같이 연구모델과 가설 5개가 설정되어 모델이 구성되고 분석되어 진다. 즉, 외부요인으로써 공직사회 외적인 부분의 업무환경(A)은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과 같은 공직자 인적 측면(B), 공직사회 내부적인 약한 부패 통제 행태(C)에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며, 직접적으로 시민이 인식하는 공직부패의 수준(D)에 영향을 준다. 추가적으로 공직자 인적 측면(B)과 부패 통제 행태(C)는 직접적으로 시민의 부패인식정도에 영향(D)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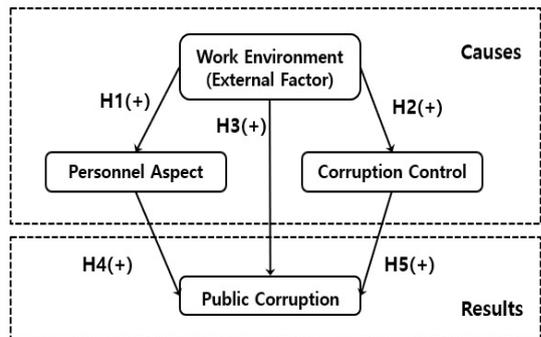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외부환경이 공직자, 통제시스템, 직접적인 공직부패로 영향을 준다는 가설(H1, H2, H3)은 배영민 등의 연구[1]와 유영현의 연구[12]에서와 같이 사회의 만연한 부패에 대한 관대함과 같은 공직사회의 외부적인 요인이 공직자, 공직부패 통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인식하는 공직부패의 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설정되었다.

공직자 개인적인 요인이 공직부패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H4)은 기본적으로 공직부패가 공직자 주체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과 배영민 등의 연구[1]에서와 같이 공직자의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인해 배임과 횡령과 같은 공직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직부패의 통제시스템이 공직부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H5)은 백완기의 연구[6]와 전수일의 연구[14]에서와 같이 시민단체나 감시기관의 합리적인 감시/통제시스템은 공직부패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2.2 관측변수 통계적 분석

연구에 사용되는 설문조사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획득(20대 이상 전국의 성인 대상 설문지 1,000부)되었으며, Table 1은 설문 대상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sponders	Freq.(%)
Gender	Male	383	38.3
	Female	617	61.7
Age	20's	125	12.5
	30's	274	27.5
	40's	224	22.4
	50's	240	24.0
	≥ 60	137	13.7
Education	≤ Middle Sch.	39	3.9
	High Sch.	297	29.7
	College(2yr)	196	19.6
	College or University Dropout	18	1.8
	University	415	41.5
	≥ Graduate	35	3.5
Income (Month)	< ₩500,000	3	0.3
	₩500,000 - 990,000	6	0.6
	₩1,000,000 - 1,990,000	77	7.7
	₩2,000,000 - 2,990,000	254	25.4
	₩3,000,000 - 3,990,000	246	24.6
	₩4,000,000 - 4,990,000	163	16.3
	₩5,000,000 - 5,990,000	110	11.0
≥ ₩6,000,000	141	14.1	

Table 1에서 남녀, 연령, 학력 등에서 균등한 비율로 조사되지 않은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ottom-Up 방식의 기존 패널자료가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Table 2는 설문지를 통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염출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와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들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잠재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특성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변수를 말하며, 관측변수는 하나의 잠재변수 내에서 수치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말한다[1, 15]. 4개의 잠재변수 내에서의 관측변수들은 모두 6-point Likert Scale로 측정되었으며, 1에 가까울수록 동의도가 낮고 6에 가까울수록 동의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Table 2. Latent and Observed Variables

Lat. Var.	Obs. Var.	AVE.	S.D.
A (Work Environment)	Aa Prctice of Bribing between Citizens and Officials	4.27	1.10
	Ab General Absurdity of Society	4.29	1.14
	Ac Citizenship Desiring Favor and Preferential Treatment	4.25	1.17
	Ad Favorable to Similar Areas and Schools	4.63	1.08
B (Personnel Aspect)	Ba Low Pay for Civil Servants	3.07	1.36
	Bb Low Sense of Ethics in Civil Servants	4.25	1.17
	Bc Prctice of Bribing Between Officials	4.37	1.15
	Bd Arbitrary Discretion of Public Officials	4.14	1.15
	Be Lobbies by Retirees	4.29	1.22
C (Corruption Control)	Ca Low Internal Cntrol	4.31	1.18
	Cb Insufficient Role in Private Sectors such as Civic Groups	3.95	1.17
	Cc Inefficient Operation of the Appraisal Agency	4.32	1.18
	Cd Lenient Punishment of Offenders	4.69	1.14
	Ce Short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Offender	4.68	1.15
D (Level of Public Corruption)	Da Universality of Providing Money, Valuables, Entertainment, and Convenience to Officials	2.80	1.25
	Db Degree to which Public Officials Accept Money, Goods, Entertainment, and Convenience	3.06	1.26
	Dc Universality of Solicitation, Mediation in Public Officials	2.99	1.18

SEM은 기본적으로 관측변수들이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되므로,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분석하며, 통상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1.965 ~ +1.965 범위 내에 통계량이 위치할 때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해석한다[5]. 본 연구에서는 Table 2의 모든 관측변수들은 정규성을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하나의 잠재변수 내에서 다수의 관측변수들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야 하며[15], 이를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잠재변수 내에서 각 관측변수들은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2.3 모델 실행 및 가설검증

SEM을 구축, 실행, 분석하는 SW는 다수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AMOS Ver. 21이 활용되었다. 또한, SEM은 분석 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적용되었다[1,15].

Fig. 2을 기반으로 SW 상에서 Fig. 3과 같이 경로도(Path Diagram)가 작성되고, 1,000개의 설문item이 SPSS에 저장된 DB가 SW에 연동되어 분석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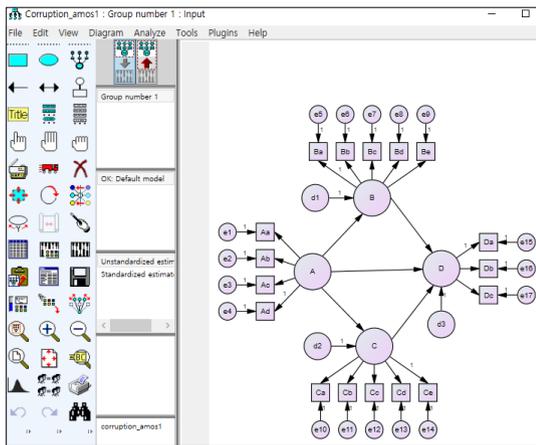


Fig. 3. Design of Path Diagram using AMOS SW

Table 3은 모델 실행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잠재변수 내에서 모든 관측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Estimate는 Regression Analysis의 회귀계수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S.E.는 Standard Error를 말하며, C.R(Critical Ration)로 Estimate를 S.E.로 나눈 값으로 P(P-value)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아닌지를 판

단하는 값으로 활용된다.

잠재변수 내 관측변수 측면에서 결과를 Estimate 및 P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환경 측면에서는 4개의 관측변수가 거의 유사하게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공직자 인적 측면에서 공직자의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잠재변수의 영향력은 다른 4개의 관측변수의 영향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사회 통념상 공직자의 보수가 적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공직비리가 발생한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패 통제 측면에서 부패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수준이 다른 4개의 관측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재변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통제적 제도나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 내부의 동료, 상급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건주의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Table 3. Running Results of SEM (Observed Variables)

Var.	Estimate	S.E.	C.R.	P	
A	Aa	0.996	0.039	25.413	< 0.05*
	Ab	1.081	0.040	27.102	< 0.05*
	Ac	1.048	0.041	25.564	< 0.05*
	Ad	1.000	-	-	-
B	Ba	1.000	-	-	-
	Bb	1.926	0.186	10.326	< 0.05*
	Bc	2.199	0.207	10.596	< 0.05*
	Bd	1.974	0.190	10.399	< 0.05*
C	Be	2.076	0.200	10.386	< 0.05*
	Ca	0.841	0.025	33.765	< 0.05*
	Cb	0.676	0.029	23.508	< 0.05*
	Cc	0.840	0.025	33.510	< 0.05*
	Cd	0.994	0.018	55.583	< 0.05*
D	Ce	1.000	-	-	-
	Da	1.000	-	-	-
	Db	1.025	0.035	29.447	< 0.05*
	Dc	1.026	0.033	31.061	< 0.05*

Table 4는 모델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변수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설 H3과 H5는 기각되지만, 나머지 H1, H2, H5는 기각되지 않았다. 즉, 업무환경 측면(외부적 요인)(A)은 공직자 인적 측면(B)과 부패에 대한 통제 측면(C)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공직자 인적 측면(B)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공직부패의 심각성(D)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업무환경 측면(A)은 직접효과(Direct Effect)로써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공직부패의 심각성(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직자 인적측면(B)을 통해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써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공직부패의 심각성(D)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able 4. Running Results of SEM (Latent Variables) and Hypotheses

Hypotheses	Estimate	S.E.	C.R.	P	Result
H1 : A → B (+)	0.456	0.045	10.087	< 0.05	Not Rejected
H2 : A → C (+)	0.972	0.041	23.949	< 0.05	Not Rejected
H3 : A → D (+)	0.020	0.119	0.164	> 0.05	Rejected
H4 : B → D (+)	0.878	0.194	4.534	< 0.05	Not Rejected
H5 : C → D (+)	-0.031	0.054	-0.573	> 0.05	Rejected

Fig. 4는 SW 내에서 경로도 상의 최종 모델 실행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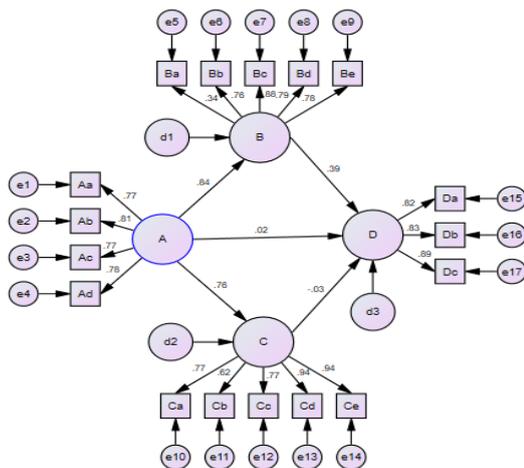


Fig. 4. Final SEM

추가적으로 SEM에서 모델의 타당도(Model Validity)는 여러 지표를 통해 분석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CFI(Composi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GFI(Goodness Fit Index)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각각 0.90, 0.89, 0.84로 분석되었고, 일

반적으로 3개의 지표에서 0.9 이상일 경우 모델의 타당도가 우수하다고 판단하지만 0.9에 근접하더라도 양호한 모델의 타당도가 있다고 해석한다[1,15].

###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공직부패의 심각도를 업무환경(외적요인), 인적측면, 통제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업무환경(외적인 측면)은 직접적으로 공직부패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직자 인적측면에 영향 직접 미친 후 결과적으로 공직부패 심각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배영민과 한승조의 연구[1]에서와 같이 공직사회의 인적자원이 공직사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특성상 외부의 요인이 어느 정도 공직부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지닌다. 즉, 공직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만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 전체의 노력이 많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이는 모델에서 공직사회 자체의 통제노력은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민 인식 부패 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서 일부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제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공익신고제도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함의(含意)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직자의 낮은 보수로 인해 과거에는 공직부패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현 공직인원의 보수체계가 향상된 것을 감안 할 때 낮은 보수가 인적 측면에서의 부패로 이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제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온건주의 등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회 구성원들이 연계(Linkage)되어 있고, 연계된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사회연결망이론[6,7]이나 하나의 시스템은 외부환경과 지속적인 Interaction을 수행한다는 시스템 이론 측면[5]에서도 공직부패는 자체 정화 외에도 외부요인의 원인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외부와 함께 부정부패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직부패 및 현 COVID-19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에서는 국가의 재해 및 재난상황에서 공직부패가 더욱 심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Nikolova & Marinov의 연

구에 의하면 공공부문에서 재해 및 재난 상황 하에서 시민의 공포와 고통을 역으로 이용하여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16], 이는 대표적으로 재난 및 재해에 놓여진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구호 및 기금이 일부 공직자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국가재해재난통제시스템의 특성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평시에도 공직사회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여러 연구에 한 국가의 재난관리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17,18]. 특히, 재해재난 상황에서 두 번째 중앙집권적인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권한이 평시보다 더욱 강화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Nikolova & Marinov의 주장과 같이 공직부패가 증가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첫째, 중앙정부 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국가 조직의 동원 필요**

**둘째, 분권적인 재난관리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통합적인 지침 및 현황 종합 등은 중앙집권적 관리 필요**

**셋째, 공공부문 의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

본 연구결과는 공직부패의 원인을 조사하는데 정량적인 분석기법의 방향뿐만 아니라 원인 파악의 접근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정성적 접근 중심의 공직부패 원인 연구와 차이가 (Research Gap) 존재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연구 제한사항(Research Limitation)이 존재하며, 이는 추후 연구(Further Research)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공직부패의 원인의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알아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직부패의 원인이 되는 잠재변수를 3개로 한정하였지만, 이외에도 더 추가될 잠재변수들이 존재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EM을 통해 구성하는데 DB를 Bottom-Up 방식을 적용한 점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을 통해 잠재변수들을 다양하게 구성한 후 Top-Down 식의 설문을 구성한 후 DB 구축 후 SEM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 References

- [1] Y. M. Bae & S. J. Han, "Effects of External Factors on Corruption in Government Socie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0, pp. 129-136, 2020.  
DOI : <https://dx.doi.org/10.14400/JDC.2020.18.10.129>
- [2] S. B. Lee,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grity of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2012.
- [3] C. H. Choi & Y. G. Chae, "A study on the trend of Korea's media pres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J. Internet Comput. Serv.*, Vol 20, No. 1, pp. 97-111, 2019.  
DOI : <https://dx.doi.org/10.7472/jksii.2019.20.1.97>
- [4] Hankyoreh. (2019. 10. 9). S. Korea ranks 13th in WEF's 2019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english.hani.co.kr.
- [5] S. J. Han. (A) *Study of Deriving Military Weather-Modification Technologies Suitable for Korean Environment and It's Establishment*, Ph. D.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2019.
- [6] W. K. Paik, S. I. Jeon & T. K. Ha. etc. "Study on the Corruption in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Network Theo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No. 34, (2), pp. 79-100. 2000.
- [7] Y. S. Yang & H. Y. Hwang, "Evolutionary and Validity Analysis of Korean New Venture Promotion Policy by Utilizing Social Network Theory - In the center of Venture Financing Circular Network", *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Vol. 7, No. 1, pp. 152-186, 2005.
- [8] G. S. Yoon, "Accountability of High-ranking Public Servants - From Political Neutrality to Political Prudenc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Vol. 30, No. 1, pp. 1-24, 2021.  
DOI : <https://dx.doi.org/10.22897/kipain.2021.30.1.001>
- [9] I. K. Seo, "A Study on the method to eradicate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in the field of similar certificates to the legal professional", *Human rights and justice*, No. 501, pp. 94-109, 2021.  
DOI : <https://dx.doi.org/10.22999/hrai.501.202111.006>
- [10] J. W. Lee, "Necessity of leveraging retired public officials' expertise and preference fo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ve period",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5, No. 2, pp. 81-106, 2021.  
DOI <https://dx.doi.org/10.18333/KPAR.55.2.81>
- [11] S. H. Park, Hwang & S. W. Han,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nti-Corruption-Related Legislation",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Vol. 26, No. 3, pp. 5-25, 2021.
- [12] Y. H. You,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Service(Research report)*, Sehan University, Cheonnam, Korea, 2002.

- [13] U. H. Cho, "A Study on the Causes and Policy Alternatives of Public Employees' Corruption", *The journal of professional management*, Vol. 8, No. 1, pp. 119-151, 2005.
- [14] S. I. Jeon. "Improving Devices for Korean Social Reception Cultur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1, No. 4, pp. 253-277, 2005.  
DOI : <https://dx.doi.org/10.24210/kapm.2007.21.4.011>
- [15] S. J. Han & S. H. Lee, "The Effects of Familiarity with Unmanned Technology on Expectation of Development in Ground Forc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ol. 19, No. 5, pp. 91-98, 2019.  
DOI : <http://dx.doi.org/10.33778/kcsa.2019.19.5.091>
- [16] Nikolova, E. & Marinov, N. "Do Public Fund Windfalls Increase Corruption? Evidence from a Natural Disaste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50, No. 11, pp. 1455-1488, 2017.  
DOI : <https://dx.doi.org/10.1177/0010414016679109>
- [17] S. Lee, *Study on Disaster Management Policy Changes and The Impact Factors*, Ph. D.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2018.
- [18] S. J. Han & J. W. We, "Analysis of COVID-19 Pandemic in terms of War Theory",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ol. 21, No. 3, pp. 81-91, 2021.  
DOI : <https://dx.doi.org/10.33778/kcsa.2021.21.3.081>

한 승 조(Seung Jo Hang)

[정회원]



- 2002년 2월 : KAIST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 2002년 2월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3년 2월 :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 2019년 8월 :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군사학박사)
- 2014년 10월 ~ 현재 : 국방과학연구소(ADD)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무기체계, 안전공학, Biomechanics

배 영 민(Young-Min Bae)

[정회원]



- 1998년 2월 : 육군사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산업공학 (공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ICT군사학부 교수

<관심분야>

다기준 의사결정, 최적화, 운영분석